

출국 전 준비

1. 비자발급

독일은 쉥겐 국가로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라면 무비자로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거주지 등록(안멜둔), 계좌개설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독일은 행정 처리가 워낙 오래걸리기 때문에 행정은 다 대면으로 현지에서 진행했다.

2. 주거

주거는 크게 기숙사와 자취로 구분할 수 있다. 기숙사는 월세가 저렴하고, 다양한 문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어서 좋다. 단점으로는 시설이 생각보다 열악하고 2인이서 주방과 화장실을 나눠 쓰는 형태이다. 초반에는 독일식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에 방을 구해보려 했으나, 한 학기만 내주는 집이 많지 않았고, 더군다나 독일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동양인 여학생에게 내주는 집주인이 별로 없었다. 물론 그 중에서도 같은 시기가 맞아 교환을 가느라 집을 내놓은 친구들을 찾아 그곳에 3-4개월정도 사는 방식도 있어서 본인에게 잘 맞는 타입의 집을 고르면 된다.

3. 유심

통신사 O2에 직접 가서 유심을 샀고, 프리페이드(선불요금제)를 사용했다. 매달 12GB에 20유로 정도였다. 처음 계약할 때 신규가입자로서 15GB를 10유로에 주는 프로모션으로 진행해 그것을 선택했다. 현지에서 왓츠앱이나 텔레그램을 위주로 사용했다. 전화보다는 왓츠앱 통화를 주로 썼고, 데이터 쓸 일이 많아서 넉넉한 요금제로 선택했으나 통신사별로 혜택이 다르니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4. 보험

독일에서는 학생이라면 꼭 보험을 들어야했고, TK / AOK가 대표적인 공보험 회사이다. 사보험이 더 저렴하나, 보장되는 혜택이 보험사마다 다르니 돈을 좀 더 주더라도 공보험을 추천한다. 나는 AOK 이용했고, 매달 120유로 정도 지불했다. 여기서는 보험으로 가다실까지 보장 되니, 여유가 된다면 꼭 맞길 바란다! 가다실은 한 번에 약 값 200유로 정도. 주사 놔주는 비용 10유로해서 한 번 맞을 때 총 210유로정도 들었고, AOK 앱을 통해 느리지만 약 값 비용 전체를 환급해주었다! 1차 접종 이후 2차는 6주~8주 주기, 3차는 8주 순으로 맞으면 되니 기간 계산을 잘 해보고 보험 적용되는 날 부터 맞기를 추천한다. (위 주기는 병원측에서 말해준 사항이나 다를 수 있으니 1차 접종 시 담당 의사 선생님 말을 따르면 된다...)

5. 짐싸기

사실 웬만한건 독일에도 다 있기 때문에, 흔히들 말하는 고무장갑, 폼클렌징 정도면 될 것 같다! 전기장판도 아마존에서 다 살수 있다. (10만원 내외로 유명 브랜드 제품 구매 가능) 중요한건 '음식' 일 것 같다. 한국에서는 정말 얼마안하는 것들이 아시아마트에서 사려면 괜히 비싸니까, 자신이 좋아하거나 없으면 안되는 양념(?) 같은게 있다면 좀 사오는 것을 추천한다. 필자는 음식으로 누룽지, 국블럭만 챙겼는데 이 두개 추천한다!

학교 생활/ 학교에 대하여

1. 학교측 국제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 버디

미드 프렌즈를 너무 좋아했던지라, 교환을 가면 당연히 매일 모여서 고민상담하고 파티가 열리고... 를 상상했다. 다만 브레멘은 그렇게까지 국제학생이 많지도 않고, 버디 한 명이 그 한 학기 전체의 교환학생을 담당하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한 도움을 줄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다. 그래도 교환학생끼리 서로서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 어학

학교에서 수준별 테스트이후에 주 1회 독일어학원을 다닐 수 있게 반을 배정해준다. 국제학생이나 신입생을 위한 반이 개설되어있고 브레멘 대학교 괴테어학원에서 수업이 진행된다.

2. 캠퍼스

캠퍼스는 크게 두군데로 나눌수있다. 예종과 비슷한 느낌이다. 예종으로 치면 음악원은 시내에, 미술-디자인학부는 강변즈음에 위치해 있다. 수업교류로 친구들을 사귄 수 있으며, 학기초에 열리는 파티를 통해서도 친구들을 만난다.

3. 수업

- 수강신청

교환학생에게 계정을 만들어주긴하지만 나는 이미 재학생 수강신청이 끝나고 개강한지 일주일만 지나서야 포털 아이디를 받았다. 그래서인지 이미 시작된 수업도 많았고, 4월에 처음 갔던 나는 독일대학으로 치면 2학기 엮기 때문에, 1학기인 10월부터 시작해 2-3월 방학 사이에도 수업이 진행중이었던 수업들이 있어서 반려당하기 일쑤였다. 그래도 굴하지 않고 수강신청 메일을 넣은 결과 듣고싶었던 수업들을 끝내 들을수있었다. 적극성이 중요하다!

- 클라쎄, 코스와 세미나

교환가는 과별로 다르겠지만, Fine Arts 인 학생들은 클라쎄 개념을 사용한다. 한 교수님 지도하에 반 학생들이 10~15명 정도로 구성되어있고, 이들은 2주에 한번씩 작업물을 크리틱-피드백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코스는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개념의 수업이고, 세미나는 이론을 교수님이 가르쳐주는 그런 강의식 수업이다.

4. 학기말 전시 (룬트강)

학기가 끝나는 여름 7월초, 학교에서는 연례전시(?)를 한다. 한 학기 동안 준비했던 작품들을 보여주는 전시회이고, 학교 전체가 전시회가 되어 친구들의 작품도 구경하고 파티도 열리기에 편히 즐기면 된다.

5. 교통 - 세메스터티켓과 bahn25/50 카드

브레멘주 내에서는 학생증 (제메스터티켓)이 있으면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학기 초반에 내는 기여금 (한 학기에 약 15~20만원정도)에 포함되어 있다. 브레멘 외에도 니더작센주에 있는 다른 곳도 다녀올수있으니 알뜰하게 사용하시길 추천한다!

+추가 팁) 독일에서 1년교환생활을 계획중이라면, 학생증 외에 독일기차회사 DB(도이체반)에서 나온 **Bahn card 반카드**를 적극 이용하시길 추천합니다. 독일은 기차표를 제값 다 주려면 은근 만만치 않은데, 학생이라면 저렴하게 반카드를 구입할 수 있고, 기차표를 살때마다 할인해주기때문에 유용합니다. 1년단위로 계약할 수 있고, 저는 반 50을 70유로 정도 (약 10만원) 주고 샀습니다. 다만, 제 값을 다 내야하는 상황에서만 50프로 할인받을수있고, 나머지의 대부분 경우는 25프로 정도의 할인율입니다. 반카드가 없어도 일찍 예매하면(기차 타기 최소 1

주일 전~) 기본적으로 할인이 들어가 있기때문에 사진다면 반 25를 사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이 두개의 조합이면 독일 여행 뽐뽐을수있어요! ㅎㅎ

브레멘 생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치안에 있어서는 독일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한국만 큼은 아니고, 밤 늦게 돌아다니면 가끔 술취한 사람들이 해코지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HBF(하얏트 반호 프)라고 불리우는 중앙역 주변에는 홈리스들이 많으니 너무 깊은 밤에 그 근처에 가시는 것은 주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교환을 가기 전 선배들의 수기를 읽어보면서 정보를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귀국한지 4개월정도 지난 시점이라, 제가 말씀드린 상황들이 달라졌을 수도 있으니 제 수기는 참고만 하시고 꼭 더블체크해보시는걸 추천합니다!

독일은 '서류의 나라' 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교내 1차 선발이후 2차로 교환교에서 승인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10월초에 교내 선발 이후 12월 까지 교환교 측에서 연락이 없었고... 독일 친구가 국제처에 직접 전화로 문의해준 덕에 국제처가 주 2 회정도만 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2월 둘째주 즈음 합격 발표가 나왔고, 1월 말까지 휴가로 인해 2월즈음 기숙사와 관련된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3월 말 즈음 기숙사에 들어 가기로 확정이 났고, 저는 그 전까지 친구가 살고 있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처음 독일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대도시이자 독일 금융의 허브로 뉴욕? (뉴욕은 과장입니다..ㅎ) 서울?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브레멘으로 넘어오고 중앙역에서 내리자마자 '진짜 어떡하지.....?'라는 생각 뿐이었습니다. 유럽의 아름다움(?)은 2주정도면 적응이 되기에... 더이상 건물을 보거나 성당에 간 다고해서 흥미가 있거나 하진 않았습니다만... 브레멘에서의 생활은 단조롭지만 느낌의 미학을 제대로 경험 할 수 있는 생활이었습니다.

또, 제가 파티를 좋아하는 사람인줄알았는데, 막상 매일 파티를 가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다보니 사람 좋아하는 E인 저도 기빨리는 상황이 많았고, 한 학기 더 연장을 하면서는 확실히 저에게 집중하는 '독 일인 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독일 시스템에 적응하고 비자이슈, 수강신청 불가, 독일어 등의 이슈로 힘든일도 있었지만 정말 친구들덕에 즐거운 경험도 많이 했고, 미술-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는 더할 나위없는 선택지라 생각해요. 자기만의 시간을 잘 보내는 법을 알게됐고, 스스로를 돌아볼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인생에서 한번쯤은 이런 곳에 살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며 독일 교환학생 매우 추천 합니다!

혹시 이걸 읽게된 학우 분들 중에서 추가적으로 궁금한거나 정보가 필요하시면 메일 주세요~

lovemelissaa@naver.com 입니다!

감사합니다~